울산대학교 사회과학 논집 제4권 제1호 pp. 19~32, 1994.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 No. 1, pp. 19~32, 1994.
University of Ulsan.

企業倫理와 社會責任에 對한 考察

林義澤
經營學科

〈要 約〉

經營의 原理는 利益 極大化이지만 現代社會에 어울리는 새로운 原理 構築이 要求되며 이러한 가운데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提唱하게 되고 經營者는 自身의 價値基盤위에 多樣한 利害關係者에 依한 價値基準을 考慮하고 그 위에 여러 理論이나 接近法을 綜合하고 摸索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Business Ethics and its Social Responsibility

Lim Ley-Tack
Dept. of Management

〈Abstract〉

The principle of management is of course maximization of the profit, and yet the construction of new principle harmonious with modern society is required, and at the same time business ehtics and its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human cooperation is proposed.

The manager should consider the value bases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in the light of his own value system and in addition unite various theories and approaches.

序 論

經營學이 社會科學의 한 領域으로 社會에 奉仕하는 學問領域으로서 或은 實踐的學問으로서 巨大한 現實에 適合키 爲하여는 如何히 해야 할 것인가. 經營學이 學問으로서의 對象으로 經營의 行爲者나 實行者(主體)를 주시하고 特殊한 技術의 側面에서 行爲主體로서의 經營者는 經營가운데 어떤 位置에 두어야 하는가.

本 論文은 經營의 本質 或은 企業의 本質을 生覺하고 그 本質을 깊이 파내는 열쇠로서 倫理 乃至 道德을 考察 對象으로 한다. 企業은 法人이며 매우 現實的인 힘과 結付된 企業의 擬制的 特性때문에 企業은 道德的으로 어려운 對象으로 만든다. 幾何學에서 倫理性을 求하는 것이 無理이듯이 經營學에서 道德性을 求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한다. 經營學이 人間의 物質欲에 奉仕하는 技術學이지만 人文科學으로서 어느 程度 倫理的 要件과 社會的 責任을 갖추어야 함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이 論文의 目的은 企業을 보는 視覺을 再構築하고 明確히 하는 것이다. 1990年代에 와서 企業을 評價하는 基準으로 21世紀 優秀企業은 倫理的이며 社會責任을 다해야 한다는 經營思想이 澎湃되고 있다. 企業은 强해야 存在하고 倫理性과 社會責任이 없으면 生存할 資格을 喪失하게 된다.

特히 社會責任(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企業倫理(business ethics)를 生覺하므로서 本 論文은 成立한다. 따라서 本 論文의 構成은 (1)經營學의 原理 (2)社會責任論 (3)企業倫理의 議論을 軸으로 하여 展開해 나간다.

Ⅰ. 企業經營의 原理

經營(menagement)이 經營이기 爲한 論據 經營의 對象領域 經營의 論理 又는 範圍라고 하는 問題가 本節의 課題이다. 말을 바꾸어 本節은 後述하는 經營의 本質의 前提條件이 되는 議論인 것이다.

經營의 意義에 對하여는 經營學者의 數와 같은 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管理課程學派(management process school)의 見解를 中心으로 生覺하면 H. 쿤쯔(Harold Koontz)는 經營을 「組織化된 集團가운데 活動하는 사람들의 一切의 事物에 對한 獲得되는 課程」이라 하고 쿤쯔는 別途로 다음과 같이 言及했다.

어쩌면 經營行動만큼 人間의 行動에 對해서 重要한 領域은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經營行動이 集團가운데서 다 함께 일하는 人間의 集團目標의 達成을 效果的으로 갖는 效率的이기 爲하여 遂行해가는 內部環境의 設定, 維持해 가는것이 經營者의 本分이기 때문이다. 經營者가 스스로 活動領域에 影響을 미치는 倫理環境, 社會環境, 經濟環境, 政治環境, 技術環境 等 많은 要素를 理解치 않고 또한 責任을 갖지 않으면 經營者는 그 일을 充分히 해 낼수가 없게 된다. 이와같이 쿤쯔 等의 管理學派는 經營의 中心에 經營者를 놓고 經營의 本質을 깊이 考察했다.

여기서 最初로 引用한 「사람들의 一切의 事物에 對한 獲得」 事象과 經營者의 關係는 어떤 것인가. 經營者가 經營者로서 成立하는 前提로서 人間모두가 함께 움직여서 目標를 達成하는 "場"의 存在가 必要하다. 쿤쯔는 "場"이라는 用語를 쓰지않고 集團(Group)이란 用語를 쓰고 있는것 같다. 人間은 다른 사람들과의 協力과 不可欠의 認識을 하기 때문에 集團活動이 存在한다. 人間 自身이 갖는 物理的인 限界, 生物的인 限界, 心理的 限界로부터 人間 스스로가 他

人의 目標를 거의 達成키 爲하여는 다른 사람들과 提携하고 뭉쳐 結束해야 한다. 같은 모양으로 人間은 누구던지 時間, 돈, 不快 或은 다른 사람을 찾고 집안 支出을 最低로 하여 個人 滿足의 極大化를 願한다.

協力(複數의)으로부터 目標達成을 願하고 效率的인 目標達成을 願한다.

集團活動이 私企業 軍隊 宗敎(團體) 慈善(團體) 社會 或은 다른 目標에 關與하는 것도 妥當하다고 본다.

쿤쯔는 여기서 組織(Crganization)이란 用語를 쓰지 않고 組織이란 「企業組織에 限定치 않고 特定의 部門, 特定의 社會, 特定의 政府當局 特定의 敎會와 같이 人間이 함께 일하는 集團은 어디든지」 組織은 妥當하다고 본다.

여기에 對하여 다른 管理課程學者 R.그리핀(Ricky Griffin)에 依하면 經營의 課程을 쿤쯔 以上으로 重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經營이란 效率的인 方法 效果的인 方法으로 組織目標에 到達하기 때문에 特定 組織의 人間資源 物質的 資源을 計劃 組織, 指導 制御한다고 하는 課程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리핀은 組織에 걸려 있는 資源의 有效利用을 生覺했다.

經營은 特定 組織이 自由로히 利用하는 多樣한 資源獲得이나 組織目標의 達成方法, 多樣한 資源의 結合에 關與한다. 以上과 같이 管理課程學派의 見解를 參考로 하면서 經營의 意義를 整理하면 經營이란 效率性과 效果性을 갖는 方法을 利用하며 特定環境의 影響을 받고 다른 人間의 協力을 얻고 그 人間의 屬하는 場에 一定한 目的을 志向하고 達成하기 爲한 活動原理라고 한다.

○ 經營學의 多樣性(多義性)

經營者의 現狀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見解가 있다.[1] 이와같은 經營硏究의 發展, 硏究에 있어서의 分業의 進展을 經營者 自體의 發展이라고 樂觀해도 되지만 經營學의 方向을 달리하고 方向과 內容을 달리하고 理論을 달리하는 諸硏究와 더불어 모아진 總體는 좋은 일이지만 經營의 學際的 아푸롯치(interdisciplinary approach)나, 시스템 아푸롯치(Systems Approach)만을 意味하는 것인가.

쿤쯔(Koonz)가 「經營異論의 장글(Jungle)」(1961)안에서 論한 바와 같이 經營學에는 混亂이 있어 多種 多樣한 아푸롯치가 存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아푸롯치는 나름대로 經營의 諸問題에 有效한 處方箋을 提供할 뿐만 아니라 經營學이라는 學問自體의 範疇를 넘어서 社會科學에도 有效性이 貢獻되고 있다.

여기서는 現代에 있어서의 經營理論의 現狀을 考察하면 다루는 것은 쿤쯔(Koonz)의 「經營理論의 장글(Jungle)再訪」(1980)인 것이다.[2]

同 論文에 依하면 經營理論에 對한 아프롯치 數는 11가지로서

① 經驗的 事例에 依한 接近
② 個人 相互間의 行動 接近
③ 集團行動의 接近
④ 協業的 社會시스템 接近
⑤ 社會技術上의 시스템 接近

1) 山本安次郎 加藤勝康「經營學原論」文眞堂, 1985, p. 3.
2) Koontz H. "The Management Theory Jungl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5, No. 2, 1980, p.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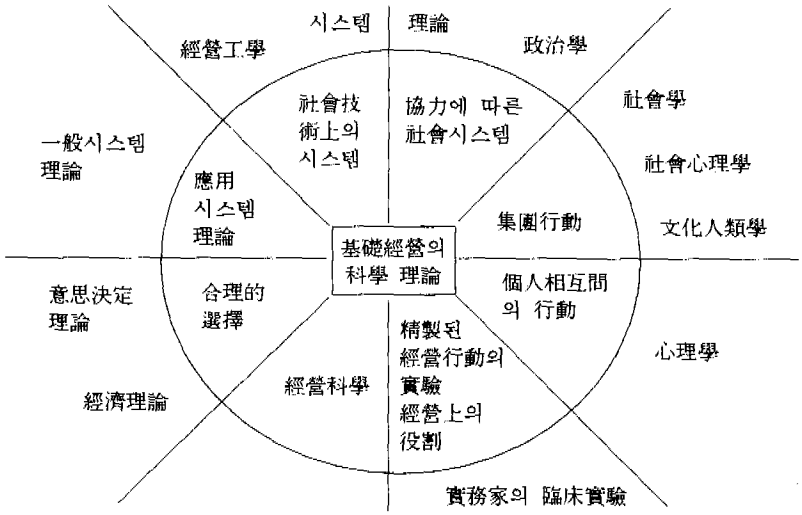

圖1 經營理論의 現狀과 範圍(圖1은 經營理論의 現狀을 말한 것임)

⑥ 意思決定理論 接近
⑦ 시스템 接近
⑧ 數學에 依한 經營科學의 接近
⑨ 狀況理論에 依한 接近
⑩ 經營上의 役割에 依한 接近
⑪ 오퍼레이션(operation)한 接近 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接近은 그 根底에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 「이러한 接近이 經營分析에서 基本的인 接近은 아니지만 經營實踐의 改善에 있어서는 特別한 領域이다」

이러한 經營理論이나 經營者의 多樣性 多元性을 갖고 있어 經營學 自體가 個人의 現實問題의 考察, 分析, 解決을 爲한 「技術」에 不適한 것이라는 論議가 되고 있다.

또한 一般原理의 追求가 아닌 個人의 事象을 生覺키 爲한 個別의 解決策을 提示가 經營의 本質인 것이다. 이와같은 對應의 集積이 經營學을 依存케 한다는 見解도 있다.

以上과 같이 經營學은 理論性이나 內容自體의 多樣化, 多元化가 있고 經營의 한便을 보면 經營自體의 山積한 課題에 한가지 方向性을 求하고 同時에 經營에 있어서 滿足할만한 解決策을 要求하고 있다.

經營者는 緊急한 問題解決을 要求하고 때로는 單獨問題가 아닌 複數의 問題가 同時에 發生하고 解決도 同時性을 要求하게 된다.

○ 多元化 中의 經營環境

現在 經營이 놓여 있는 環境을 考察하기 爲하여는 經營을 움직이는 經濟學의 原理와 여기서 생겨난 經營의 動機를 檢證할 必要가 있다.

그 對象領域은 家計, 企業으로 하고 그 分析은 主로 價格 메카니즘으로 된다. 一般的으로 經濟學은 不足한 財貨나 써비스의 生産極大化를 爲한 稀少한 資源의 有效利用을 目的으로한 硏究를 하고 企業은 生産의 移入要素(原資材, 勞動力 自體)와 出力要素인 「製品」 및 市場을 硏究對象으로 한다.

여기서 消費者의 需要와 企業의 供給을 軸으로 하여 企業은 限定된 資源을 利用하여 企業自身을 爲하여 最大의 利益을 産出(獲得)할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對한 測定原理로서 經濟學의 計數化 數値化를 利用한다. 特히 企業에서는 會計學이란 學問領域을 利用해서 利益을 追求한다. 利益追求의 原理에 對하여 T.페데이트(T. Petit)가 追跡한 바 利益原理란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 企業行動의 傳統的인 倫理 基準으로서 그 基準에 따라서 企業家는 自身의 選擇에 따라 利益에서 最大의 貢獻을 만든다.

企業이 生覺하는 價値는 貨幣換率의 表現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倫理는 冷酷하고 殘忍하고 自己本位的이고 誠實性이 적다. 그 利益原理는 18, 19世紀 英國 古典經濟學派로부터 發展한 것이다(…中略…)

利益原理를 爲한 哲學基盤을 提供했다.

1) 自然法 2) 普遍性 있는 競爭

3) 經濟的인 人間 4) 利害의 調和(…中略…)

企業家는 利益極大化에 對하여 「當然한 것」이라 하고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自由民主主義 進步, 正義라 하고 價値의 最高라고 是認하고 믿고 있다. 이러한 原理를 背景으로 經濟發展이 되고 社會는 産業化(工業化)가 至上 目的이 되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利益의 原理 不充分하여 新時代에 相應한 새로운 原理가 要請된다. T.페데이트(T. Petit)에 依하면 5가지 革命的인 背景이 있다고 했다.[3]

現在 經營者에 目標는 利益極大化로서 財務流動性의 堅持, 市場占有率의 確保, 높은 效率性의 確保, 그리고 勞動者에 對한 餘暇의 伸張, 企業에 있어서의 公的福祉의 實現 等으로 열거된다.

T.페테이트는 社會責任 原理를 提唱했다. 그 原理는 社會의 役割을 擔當한 經營者의 「能力에는 넓은 社會 目標를 達成키 爲한 不可缺한 것이 된다.

여기서 現代社會는 科學技術의 問題를 잊지 못한다. 技術開發에는 只今까지의 科學上의 知識統合과 새로운 理論構築이 要求되고 科學技術은 實驗段階를 거쳐서 實用化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人間의 營爲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倫理問題가 나타나게 된다.[4] 여기에 對하여 R. 우스노(R. wwthnow)는 技術과 市場의 問題性을 論했다.

Ⅱ. 社會責任論

○ 社會責任論의 前提로서의 시스템理論

經營者가 制約을 받지 않고 意思決定을 實施하기는 어렵다. 또 意思決定을 實施하기 때문에 前提條件인 代替選擇肢의 評價는 經營에 있어서의 制約條件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相互間 많은 影響을 주고 相對的인 同時에 存在하는 變數를 考慮에 넣으므로써 經營者는 바람직한 意思決定이 可能해진다. 또한 本節에서 意思決定이 可能해지는 시스템理論을 檢討하면 시스템理論은 쿤쯔(Koonz)의 理論에 따라 다음과 같이 槪括된다.

① 시스템은 그 部分에 屬하는 總和이므로 시스템은 全體로서 吟味될 뿐이다.

② 시스템은 (閉鎭) (開放)에 따라 考察된다.

---

3) 前揭書, pp. 15-34.
同書는 5가지 革命으로서 1.組織 2.企業 3.經營 4.組織 5.資本主義者를 稱한다.

4) 새로운 技術을 出現 生成케한 倫理問題에는 遺傳子工學 等이 있다.

③ 시스템은 어떤 것이던 環境과 區別하고 境界를 갖인다.

④ 閉鎭 開放시스템은(中略) 살아남기를 바라면 시스템은(中略) 充分한 投入要素의 섭취가 必要하다.

⑤ 시스템이(中略) 動的均衡狀態를 確保하고저 하면 시스템은 휘드 백을 試圖할 必要가 있다.

⑥ 어떤 시스템이던지 사브 시스템부터 構成된다.

⑦ 開放시스템 特히 社會시스템은 精緻化와 特殊化로 向할 傾向이 있다.

⑧ 시스템 論者는 「平衡目的性(equifinality)」라는 槪念이나 過程부터 多樣한 方法(動的安定狀態)으로부터 바람직한 成果를 達成이 可能하다고 主張한다.

이와같은 槪念, 要素, 性質을 갖는 것이 시스템이다. 이것을 展開하는 것이 시스템 理論인 것이다.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이 環境과의 相互關係에 따라 閉鎭가 開放이란 槪念이 利用된다.

② 境界(bounderies)은 시스템과 環境과의 區別하는 模일뿐이고 「閉鎭」시스템에도 環境으로부터 影響을 받는다.

③ 開放시스템은 動的인 安定狀態를 求하고 一定한 投入量을 要求한다. 經營自身의 發展을 爲하여 一定한 投入要素가 加해지고 한便 經營은 自身의 能力을 應用 一定한 出力要素를 産出한다.

④ 시스템은 目的이나 바람직한 結果의 獲得을 爲하여 活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開放) 시스템이므로 그 意味를 갖는다. 결국 한개의 시스템의 投入要素는 外部로부터 獲得되고 그 시스템의 出力要素인 成果는 시스템 外部者에게 影響을 미친다. 따라서 成果의 産出없는 시스템은 시스템 自體의 存立基盤을 疑心케 한다.

○ 시스템 理論부터 發生된 企業環境論

前述한 經營이 (開放) 시스템의 議論을 받아 經營이 環境에 對해서 미친 影響力을 考察한다. 一般的으로 經營, 特히 企業의 社會的責任(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以下社會責任이라 한다)을 論할 때 그 論據로서 시스템 理論을 論할 때가 많다.[5]

그래서 經營의 重要한 環境要因을 考慮해서 經營者는 效率이 높은 經營을 維持 發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環境이란 무엇이겠는가. 그피린(Griftin)에 依하면 3가지 環境이 있다고 하고

① 一般環境(a General environment)

② 業務環境(a tash environment)

③ 內部環境(an internal environment)라고 한다.

그 意義를 살펴보면

① 一般環境이란

組織活動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組織環境으로서 不特定의 次元으로부터 構成된다. 組織의 一般環境은 거의 經濟次元 技術次元 社會文化의 次元 政治法의 次元 國際的인 次元에 依해서 成立된다.

② 業務環境이란

그 組織에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다(①의 環境要素와 달리) 別途로 特定된 組織으로 構成된 業務環境은 同業者 顧客 納品業者(政府) 規制當局 勞動組合 提携者가 있다.

③ 內部環境이란

5) 米花稔著「經營環境論」丸善(1970), pp. 121-210.

그 組織의 構成員이 그 性質, 樣式, 特徵에 있어서 共有된 認識으로 構成된다.

이와같이 經營은 環境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經營과 環境과의 關係는 經濟→環境과 環境→經營이란 二方向이 있다. 이것은 前述한 시스템 理論으로는 當然한 것이다.

결국 시스템은 投入要素를 집어넣고 出力要素을 産出하여 시스템 自身이 살아남도록 하고 있다. 經營이라는 시스템은 經營者가 環境이라는 變數를 考慮해서 行動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經營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經營은 環境變數의 制約을 받아 目的을 探求 政策 方針의 立案 意思決定을 하게 된다.[6]

經營은 環境으로부터 影響을 받고 또 한편으론 經營은 影響을 미친다. 主體로서의 經營者는 外部環境의 構成要素로 利害關係者(stakeholders)로서 認識하고 利害關係者는 經營에 있어 制約要素가 된다. 따라서 經營의 利害關係者는 經營에 많은 影響力을 移行하게 된다. 經營者의 經濟行動에는 一定한 權能이 있고 權能은 制約을 갖는다. 權能을 保證하는 責任은 經營의 利害關係者에게 미친다. 그 責任이 바로 社會責任의 本質로 된다. 그리핀(Griffin)은 이點에서 다음과 같이 論하고 社會責任의 意義를 明白히 하였다. 社會的 責任이란 그 組織自體의 利害를 發展하고 社會全體로서 社會福祉의 保全과 改善의 行動을 爲한 組織意務라고 했다.

○ 社會責任論의 形態

社會責任은 經營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失性해 내는 한가지 要素

經營이 環境에 미치는 影響力으로부터 發生되는 出力要素(Output)라고 한다. 例를 들면 J. W안다손은(J. W Anderson) 다음과 같이 例示한다.[7]

個人의 나라들의 倫理上의 慣習, 道德律, 價格固定汚職

海外(現地法人)에서 差別받는 合辯事業

海外 駐在의 本國의 子女敎育

大氣, 水質, 固形廢車物의 汚染抑制

安全基準

健康管理

人種, 男女, 年齡에 無關係한 就業機會

敎育, 失業

製品의 安定性 包裝品質

地域社會

이러한 諸問題들은 經營의 意思決定에는 影響을 주지 않지만 將來의 經營의 收益性이나 살아남기 爲해서는 影響을 준다. 그러면 社會責任의 背景으로서는 어떤 要素가 있는 것일까? JW안다손(JW Anderson)은 다음 3가지 領域을 生覺한다.

① 法에 對한 應諸(國內法과 國際法을 포함)

② 將來 發行해야 할 道德基準이나 倫理基準의 設定

③ 慈善에 依한 寄付行爲의 3種類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6) Griffin이 提示한 事例로서 ①인플레에 對한 手段으로서 納品業者에 對한 價格統制 ②同業者의 實施하는 리베트 政策에로의 訴訟提起 ③勞動組合과 勞動協約의 締結 等이다. 前揭書, pp. 82-84.

7) Anderson, Jr. J.W.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Corporation" Business Horizons, Vol. 29, No. 4, 1986, p. 22.

이러한 見解는 經營이 環境으로부터 받는 影響力을 中心으로 한 考察이라고 生覺된다.

그러므로 經營은 한個의 主體로서 意思決定을 實施하고 環境에 對한 影響力을 保持하며 여기서 經營이 環境에 積極的으로 갖는 主體的인 關與로서 社會責任의 展開가 있다고 본다.[8] M.A 스트로푸(M.A Stroup)의 見解가 이러한 것이다.

社會의 期待에 應하는 會社의 槪念은 새로히 進展되고 社會責任도 當初社會를 爲한 自發的인 實行活動을 意味한다. 그래서 會社는 社會가 要求하는 時代를 뛰어넘어 至今은 社會責任의 發展段階는 第3段階에 到達했다. 卽 企業의 社會責任은 投資로서 生覺하는 時代가 到來한 것이다.

여기서 第3段階란

第1段階가 自發的인 善行을 하는 段階를 意味하고

第2段階는 定해진 社會責任의 遂行段階이고

第3段階는 새로운 善行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토로푸에 依하면 經營이 資源(特히 天然資源)의 有限性을 認識하여 飛躍的인 經濟成長을 바라보는 現在 資源의 消費에 對해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一項目으로서 묻고 있어야 된다고 主張한다. 그렇게 하기 爲하여는 企業이 스스로 生存과 競爭의 優位性을 가지고 나가기 爲해서 善行의 段階로부터 새롭고 커다란 善行을 하는 段階로 發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認識이 일어나고 있고 좀 느리지만 社會責任의 態度도 점차 事業運營에 있어서 企業에서도 長期價値란 短期코스트를 멀리 上回한다는 認識이 높아지고 있다.

結論지울 수 있는 것은 社會責任으로부터 負擔되는 費用은 「投資」로서의 認識과 여기에 뒷받침 되는 處理(會計處理)라고 主張한다. 以上과 같이 보게되면 社會責任의 論議란 經營을 에워싼 環境이 經營에 對해서 미치는 影響을 밝히고 社會責任의 論議는 經營環境리나는 制約條件을 考察하고 經營環境이란 積極的 關與라는 命題임이 틀림없다.

經營이란 한個의 存在를 社會라고하는 座標軸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經濟 意思決定의 實施에는 무엇인가의 價値判斷이 있다고 본다. 또 經營의 意思決定의 實施하기 以前에 檢討段階로서 經營은 한個의 價値判斷(豫斷)을 갖고 있다.

여기서 經營의 主體者(한個의 認識主體)로서의 側面이 存在하고 있다.[9]

社會責任이 經營의 外部로부터의 影響力을 考慮에 넣어서 經營은 直面하는 諸問題에 對하여 最適의 效率性을 가지고 代替選擇을 生覺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經營은 意思決定의 問題를 重視하여 經營의 意思決定을 解明하는 手段으로서 企業倫理(business eihics)의 考察을 始作할 必要가 있다.

Ⅲ. 意思決定으로서의 企業倫理

企業倫理 登場의 背景[10]

經營은 自體的으로 個別的 問題의 解決을 求하고 있는바 이는 換言하면 問題解決을 해 나가

8) 이 觀點은 昨今의 企業 Corporate philanthropy 活動으로서 注目된다.
『企業と地域社會 良き企業市民の條件』日本國際交流センタ(1986).

9) 名東孝二『經營·經濟の一般理論をトータルに理解しよう』時潮社(1990), pp. 1-3.

10) 企業倫理에 있어 1989年부터 刊行狀況은 企業倫理와 計劃(戰略形成의 問題)「實踐經營」第12卷 1號, 1990年 9月 書評.

는 것이다.[11] Max Weber가 오늘날 社會倫理는 傳統社會의 動機倫理가 아니라 責任倫理라야 한다고 主張한 것도 現代社會의 이런 傾向을 反映한다. 自然的으로 솟아오른 샘물을 食水로 使用할때와 水道물을 使用할때 人間이 져야할 責任은 다를 수 밖에 없듯이.

여기서 每日의 新聞을 읽어보면 企業經營者가 實施한 選擇이 이따금씩 問題를 發生케 하는가를 生覺해보면 그 問題가운데는 倫理上의 問題라 불리우는 人間의 價値觀이나 價値判斷에 따른 問題인 것이다.

여기서 昨今問題가 되고 있는 經營에 있어서의 倫理問題「企業倫理(business ethics) 以下 企業倫理라 稱」의 登場의 背景을 考察하면

Barter Travenol社의 南Afvica의 投資撤退

Portlana Machinery社의 從業員 解雇

더욱이 多國籍 企業으로서의 Lockheet社의 日本政府高官 等에 對한 政治獻金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經營을 만들어 내는 效果(Output)로서 現在의 解決策이나 將來의 問題再發의 防止로서는 經營者가 왜 選擇을 하게 되는가 하는 論議가 必要 할 것이다.

特히 將來에 있어서의 問題再發을 阻止키 爲하여는 事后 對策으로서 經營者의 잘못된 選擇에 對해서 外面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經營은 環境變數를 考慮치 않고 經營自身의 目的이나 目標를 達成코저 한다. 그래서 어떤 境遇에도 目的이나 目標에 經營自體의 價値判斷을 갖인 一定의 方向性이 있다. 經營의 目的의 達成에는 무엇인가의 意思表示가 必要하다. 意思表示에 依해서 經營者는 經營이 갖는 能力을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經營이 目的達成을 爲하여 한가지 政策이나 方針을 定하는것은 여러가지 效果나 事態가 生긴다.

經營者는 여러 環境要素를 考慮하고 한가지 以上의 選擇可能한 行動樣式가운데 그 時點에서 最適이라 生覺되는 代替選擇을 하므로서 意思決定을 할 수가 있다.

또 經營者의 意思決定에는 困難한 問題가 있지만, 經營은 經營外部로부터 影響力과 經營에 미치는 影響力과의 2가지 點을 考慮해야 한다.

例를들면 前者는 技術의 趨勢이고 後者는 國際化가 되어 다른 나라에 進出했을때 文化摩擦의 問題가 생각된다.

여기서 經營의 意思決定은 迅速히 밀고 나갈 必要가 있다. 따라서 經營의 意思決定은 여러 影響力을 充分히 反映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한가지 意思決定부터 經營의 對立이나 衝突(Conflict)의 事典의 回避가 經營者나 經營의 利害 關係者에게 賢明하라고 生覺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狀況에서는 從來부터의 計量的 分析이나 檢討만으로는 經營의 意思決定은 不充分하고 經營은 環境要素에 있어서도 計量的인 解析困難한 要素는 經營自體에 依해서 不滿足한 要素로서 考慮해볼 必要가 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要素를 意思決定의 가운데 포함시켜서 求해 볼 수가 있다.

그리하여 經營의 意思決定은 經營行動을 빈번히 빨리하게 하고 그리하여 效果로서는 經營行動에는 多樣한 사람들로부터 價値判斷(一定의 評價)이 加해지는 한便으로 經營의 意思決定에는 當初부터 價値判斷을 거친 經營은 意思決定을 實施하고 經營自身이 採擇한 代替選擇이 經營上의 利害關係者의 樹立이나 矛盾을 가져올 可能性이 있다.

언제나 經營者는 問題의 解決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問題의 放置는 現象의 維持에 不過한 것이고 또 問題의 放置는 從來 經營에 危機를 가져올 可能性이 있다.(問題의 解決方法은 貨幣價値의 換算의 手段으로 쓰일때가 많다.) 金錢的인 手段을 이야기할때는 問題가 再發하는 境

11) 經營은 問題解決의 手法으로서의 見解가 있고 問題解決로서의 硏究하는 著作이 있다.

遇가 있다. 經營은 같은 전철을 밟고가면 樹立이나 衝突이 다시 發生한다.

어떤 境遇에도 樹立의 回避나 衝突의 解決에는 經營自身의 原理의 뿌리를 倫理를 포함한 價値에 照準을 맞출 必要가 있다. 이와같은 倫理나 價値의 檢討가 意思決定의 mechanism을 深化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은 적어도 問題解決을 容易하게 되고 問題의 再發을 防止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經營의 意思決定을 實行키 爲하여는 從來부터의 計數에 依한 情報를 덧붙이고 從來부터의 範疇에서는 除外되었던 人間의 價値基盤을 考慮할 수 있는 企業倫理와의 兩者가 求해질 것이다.

이와같이 經營이야말로 經營에 依存하고 있는 人間의 能力을 發揮할 수 있고, 人間의 價値를 基盤으로한 思考에 保證을 주고 있다.[12]

그래서 그 思考는 人間으로부터 構成된 經營自身의 存立 基盤을 견고하게 하고 經營自身의 一貫性이나 倫理性을 維持하게 된다.

○ **經營에 있어서의 倫理構造**

— Hosmer의 Micro 經濟理論批判 —

經濟學에 있어 依然한 M. Friedman에게서 보는바와 같이 企業의 本質은 利益獲得活動으로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論難하는 見解가 있다.[13]

여기서는 Hosmer의 見解에 따라서 Micro經濟理論의 批判과 經營行動이 있는 쪽으로 論해보면 Micro 經營理論은 消費財의 需要者인 家計와 生産財의 供給者인 企業의 兩者를 行動主體로서 보면 家計는 企業과 市場을 媒介로 하고 그 原理는 企業의 立場을 重視하여 利益極大化의 原理에 重点을 두고 있다. 生産財의 供給者인 企業의 經營者는 利益極大化를 爲하여 稀少한 資源인 生産要素(資本, 勞動者, 原資材)을 最大限으로 投入해서 消費者가 利用하는 財貨나 service을 最大限의 滿足度를 가지고 供給할려고 努力한다.

여기서 Hosmer에 依하면 Micro 經濟理論은 5가지의 道德的인 主張이 숨어 있다고 主張한다.[14]

① 生産要素市場의 價格 mechanism은 資源의 有效性을 求하는 一方 稀少한 資源의 配分이 있는(…中略…) 生産要素가 均衡狀態에 達하면 資源供給의 增大가 아니면 不可能일 것이다.

② 生産社會의 生産機能은 限定되어 投入要素의 效果性을 높이기 爲하여 工程技術에 依하여 效率性이 높아지고 不足한 財貨나 service쪽의 轉換되어 간다. 生産過程이 均衡狀態에 達하면 技術進步가 없이는 效率性을 높이는 것은 社會的 費用의 減少를 초래하는 資源의 製品에로의 轉嫁는 不可能일 것이다.

③ 製品市場의 價格 mechanism은 財貨나 service의 最大의 有效 利用에 따라서 不足한 財貨나 service가 겸연찍하게 된다. (…中略…) 製品市場이 均衡狀態에 達하면 個人所得의 增大가 없으면 消費者의 滿足은 解消되지 않는다.

④ 國民社會의 政治過程은 民主的인 手段에 依해서 消費者의 個人 所得을 決定해간다.

---

12) 名東孝二, 東園芳信「圖でわかる人材育成」中央經濟社(1990).

13) Friedman M.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 The New york Times Magazine Sept 13, 1970.

14) 社會의 稀少한 資源이 生産會社에서 效率的으로 利用되고 財貨나 서비스가 競合된 市場에서 有效하게 配分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害를 끼치지 않으면 人間生活을 높이지 못하는 狀態를 稱함.

個人 所得은 生産要素의 所有에 應해서 個人의 要求, 努力, 貢獻, 競爭에 따라 配分되는 것이지만 經濟體制의 便益은 經濟過程에 依하지 않고 政治體制에 따라서 配分된다.

⑤ 生産要素 所有者에 對해서 收益配分이 民主的 過程에 다라 生産社會의 顧客에 對한 公評을 基盤으로서 實行해지면 다른 構成員의 生活에 害惡을 주지 않는 것을 條件을 붙여서라도 그 經濟體制의 構成員의 生活은 改善 不可能할 것이다.

그 理由는 (그 經濟體制에서 構成員의 生活은) 結局 無限의 欲求와 稀少한 資源의 配分에 對하여 最大限으로 滿足할 수 있는 機能에까지 到達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道德的인 主張을 갖는 Micro 經濟理論은 現實의 諸問題의 解決에 있는 것이 아니고 逆으로 Micro 經濟理論이 나아가서 現實의 諸問題의 解決이 可能할 것이라 主張한다. 經營에 있어서의 倫理問題는 依然하지만 繼續 存在한다. 經營이 一定한 均衡狀態에 到達하면 그 經營은 다음 目標를 設定하여 다른 均衡狀態로 移行하고져 努力한다.

이 行動은 어떻게 解決하고 考察해야 할것인지 Hosmer는 Micro 經濟理論에 對해서 反對하는 2가지 主張을 展開하고 있는 바

①人間의 本質과 ②人間의 價値의 問題의 2가지로 Micro 經濟理論에 批判을 加했다.

① Micro 經濟理論은 功利主義를 基盤으로 하고 功利主義는 最大多數의 幸福을 願하지만 여기에 反對하는 人間의 存在도 認定하고 있다. 도대체 「最大多數」와 「幸福」의 槪念은 功利主義에서는 一致하지만 Hosmer는 意思決定의 實行時에는 利己的인 人間이라도 똑같이 社會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人間에 對한 費用은 비슷하게 接한다고 主張한다.[15]

② 人間이 갖는 價値는 經濟的인 測定에 따라 特히 貨幣評價에 따라 行하여진다. Hosmer에 依하면 Micro 經濟理論은 資源의 最適利用에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資源의 最適利用에 對하여) Micro 經濟理論은 理論的으로 完璧하여 社會上의 見解로서는 (人間을) 知的으로 滿足해 주고 있다. Micro 經濟理論이 信念 社會內部, 社會內部의 갖는 人間(中略)에 對해서 우리들의 責任을 解明하는 倫理 system으로서 現實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다. 換言하면 Micro 經濟理論만으로는 人間의 多向性을 갖는 幅의 넓이의 存在이고 經濟的인 側面만으로는 잡을 수 없는 存在라고 한다.[16]

따라서 經營의 意思決定을 解明키 爲하여는 企業倫理로서 Micro 經濟理論만으로는 不充分하다. 經營이 人間을 對象하고 있는 限, 經營의 原理는 Micro 經濟理論 뿐만아니라 Micro 經濟理論을 끌어내는 企業의 利益極大化의 理論도 不充分한 議論으로 生覺된다.

○ 倫理的 相對主義

Hosmer는 倫理論을 規範哲學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그 規範哲學을 論하기 前에는 倫理的 相對主義(ethical relativism)을 論할 必要가 있다. 倫理的 相對主義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倫理의 狀況을 깊게 하는 重大한 論議인 것이다. Hosmer에 依하면 그 定義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17] 人間이 어떠한 文化속에서도 어떤 時代에도 모든 Group에 對해서도 適用可能한 信念을 갖고 倫理信念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客觀的 存在 原理가 存在하는가 行動의 道

15) 人間이 단지 自己의 利益을 爲하여 行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認識하고 다른 사람을 爲해서 行動하는 것을 論議의 背景으로 한다.

16) 經營學에 있어서 行動科學이라는 管理過程學派의 오퍼레이션한 어푸로치의 對立点은 人間에 對한 見解를 달리(異)하는 論点이 있는데 人間에 對한 見解가 다른 것은 本文에서는 人間의 多樣性을 말하는 것이다.

17) 倫理的 相對主義의 意義에 對하여 「一定의 道德性을 批判하는 普遍的인 標準내지는 一連의 標準같은 存在가 없다는 態度」가 있다.

德基準은 單一文化內의 Group間에나 文化間이나 時代間에도 다르다.

倫理的 相對主義의 議論에서는 規範哲學으로서의 倫理의 確立은 不可能하지 않을까 하는 見解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道德基準이나 倫理原理는 現實에 存在하고 機能하고 있음은 이는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그 背景에는 人間自身이 갖는 共通性이나 普遍性이 숨겨진 것이 아닌가. 人間은 社會를 만들어내는 構成員으로 되고 그래서 人間은 共同行爲를 하게 된다. 人間이 살아가기 爲하여는 다른 人間에 對한 考慮을 基礎로한 協力(Cooperation)이라고 하는 共通基盤이 必要한 條件이 된다. 바로 이 協力이라고 하는 基盤 그것이 必要한 條件이 된다. 協力이란 基盤이 倫理原理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Hosmer는 倫理的 相對主義의 問題를 提起한다. 社會에 便益을 提供하는 (讀者의) 道德基準이 社會에 便益을 提供한다(Hosmer의) 道德基準과 똑같이 바람직한 것인지 疑問이 있다. 이 問題는 우리들에게 强制力을 갖는 Group文化 時代를 넘어서 實際擴張하는 1個의 原理를 불러내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道德基準을 正當化되는 것인지 問題가 된다. Hosmer의 議論에 따르면 좀마른(黑) 倫理가 2가지 以上 存在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倫理의 한가지는 社會가운데 機能하고 있으며, 이러한 倫理가 다른 社會와 接할때 이러한 倫理의 混亂이 생긴다. 따라서 人間은 社會가운데 살고 있어 人間은 社會가운데 相互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人間은 他의 人間에 對한 責任을지고 있어야 한다. 말을 바꾸면 人間의 約束은 相互 維持해가기 때문에 人間自身이 만든 社會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5가지 倫理理論

社會에 있어서 共同原理와 社會에 있어서의 人間의 相互 依存性은 그 根幹이 責任의 認識으로서 倫理의 基本이 된다.

여기서 基盤의 基礎가 되는 것을 Hosmer는 5가지로 倫理 System을 들고 있다.

① 不變의 法(eternal Law)

이 倫理는 基督敎의 聖書에서 展開된 黃金律[18] 이러한 原理에 따라서도 人生에 對해서는 普遍的인 解釋이 提供되지 않는다. (中略) 이 解釋은 個人의 狀況에 따라서 變化해 간다.

② 功利主義(utilitarianism)

功利主義는 目的理論을 適用한 J. Bentham이나 J. Mill에 依해서 提唱되고 있다. 功利主義는 最大 多數의 幸福이 最大善으로 된다고 하고, 여기서 功利主義는 最大 多數의 幸福과 最大善이라고 하는 2가지 槪念이 있어 그 두가지 原理의 調整과 計量化가 問題가 된다.

③ 普遍救濟主義(Universalism)

이 議論은 義務理論이라고 하고 E. 칸트(E. Kant)가 提唱했다. 「一定의 行動의 道德, 價値는 意思決定을 한다. (中略) 人物의 意圖에 따라서 論해진다. 이러한 議論을 論하는 사람도 人間의 行動에는 複數의 目的(對象)이 있다고 하고 그 優先 順位는 存在치 않고 存在할 수도 없는 것이라 主張하고 있다.

④ 分配에 따른 正義(Distributive Justice)

이 論議는 J. 로-루스(J. Rawls)가 提唱하고 個人相互의 協力이 社會全體의 善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 原理는 平等, 要求, 努力, 貢獻, 能力에 따라 成果를 配分하는 것이다. 個人의 努力과 「社會共同이 여러 社會 經濟便益, 社會便益에 基盤을 提供하는 提案의 受容」이의 調整은 分明치 않다.[19]

---

18) 新約聖書 누가福音(第6章31節) 남에게 대접을 받고저 하는데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19) "正義論" 矢島均次 紀伊國房書店, 1979年.

⑤ 個人의 自由(Perosonal Liberty)

R. 노직크(R. Nozick) 個人의 自由라는 것이 財産權의 自發性을 잡는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個人의 自由를 阻止하는 社會로부터의 影響力을 排除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人間은 自己의 權利主張을 行事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權利를 밟고할 可能性이 있고 自己權利와 他人의 權利를 調整하는 方法이 明確치 않다.[20]

結 論

經營을 움직이게 하는 原理에는 資本主義 經濟를 考察對象으로 하는 經濟學의 原理로서 이러한 原理는 利益(利潤) 極大化의 原理라고 말할 수 있다. 現代社會에서는 利益極大化의 原理로서 充分한 機能을 갖지만 現代社會에 어울리는 새로운 原理基盤의 構築이 要求되고 있다. 이것은 經營者의 目標가 단순히 前述한 利益極大化에 그치지 않고 多樣한 目的(例로서 市場占有率의 確保, 保全, 企業의 財務體質의 强化, 人間資産의 確保, 忠實, 研究技術開發의 向上, 進展 協力을 中心으로한 社會貢獻의 追求)을 同時에 아울러 追求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社會責任 原理를 提唱하게 되고, 社會責任 原理는 System 理論을 背景으로 한 經營의 環境要素를 考慮하는 것으로 되었다.

여기서 社會 責任 原理의 考慮는 經營環境의 考慮이다. 따라서 現代經營에 對한 考察로서 經營全體를 다루는 것은 힘든 일인 것이다.

經營管理의 接近에 따라서 經營行動을 生覺할 때 經營行動에는 計劃, 組織, 人事, 統制(制御)가 있는데 經營行動이 問題解決의 行動을 爲한 手順을 生覺해보면 經營行動이 充分히 問題解決을 提示할 수 없을때는 經營에 對한 計劃의 考察에 깊이 生覺할 必要가 있다. 計劃이 他의 經營行動(組織, 人事, 制御)의 優位性을 갖고 있어 이러한 計劃이 英知를 갖는 人間의 思考에 뿌리박혀 있다. 그 英知가 人間自身의 未來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經營에서 計劃이란 要素의 考慮가 더욱 要求되고 있다. 特히 計劃가운데 意思決定을 詳細히 檢討할 必要가 要請된다.

計劃의 一要素로서 從來부터의 倫理觀이나 價値觀에다 그위에 企業倫理라고 하는 要素를 考慮할 必要가 있다. 그리하여 經營의 意思決定에 反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하여는 經營은 企業倫理라고 하는 手段을 利用해서 經營의 問題解決을 소망스럽게 해야 한다. 企業倫理란 經營者 스스로가 自己自身을 爲하여 스스로 立場이나 利益을 지키고 또 意思決定을 하는 外에 經營에 關한 여러 利害關係者의 立場(倫理觀이나 價値觀)을 考慮하여 意思決定에 一助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마(Hosmer)는 經營에 있어서 倫理構造를 論述코 2가지 觀點에서 Micro 經濟理論에 批判을 加했다. 同氏는 Micro 經濟理論의 原理가

1) (經營者 自身을 爲해서) 自己利益의 保全을 하기 爲해서 人間으로서 經營者와 다른 사람에 對하여 寬容을 함께 가지고 다른 사람에 對한 寬容은 自己利益의 保全을 上回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假說을 提示하고 있다.

그 위에 同氏는

2) Micro 經濟理論에는 人間의 價値를 測定하는 위에 尺度가 適切치 않는 것이 아닌가. 人

20) "國家유토피아" 嶋津格 木鐸社, 1989年.

間의 價値를 貨幣價値에 依한 測定의 疑問을 提示하고 있다.

이와같이 同氏는 Micro 經濟理論의 原理 그 自體를 批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同氏는 倫理論에 對해서는 批判을 加하고 倫理論이

① 倫理自體에는 普遍性이 存在치 않는다는 現代倫理論의 한가지인 倫理的 相對主義에 疑問을 던지고 있다.

② 여러 倫理理論 自體가 갖는 결함을 同時에 指適했다. 前述한 바와같이 經營이 人間을 對象으로한 以上 經營은 人間을 複雜한 多樣性을 숨기고 있는 實體로서 生覺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經營이 從前의 Micro 經濟理論이나 여러 倫理論은 勿論이려니와 經營學에 있어서 管理過程學派에 依한 오퍼레이숀 한 어푸로치(operation한 Approach) 行動科學에 依한 Approach, System에 依한 Approach를 理解, 考察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위에 經營의 個別問題의 解決을 爲해 從來부터의 價値觀이나 宇宙觀에 뿌리를 둔 思考를 둔 企業의 倫理的 側面을 考慮해 볼 必要가 있다. 例를 들면 R.E후리만(R.E Edward Fireeman)으로 代表되는 經營에 關係되는 利害關係者의 價値觀을 考慮하여 그 戰略의 構築이 可能하다고 하는 見解도 있다. 그리하여 이 후리만 經營에서의 優良性은 戰略의 形成과 倫理의 探究의 再輪으로서 그 첫 出發을 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理論이나 接近을 全部 考慮하여 經營에 對해서 支援을 해주는 格이 된다. 그리하여 昨今問題 자주 擧論되는 日本의 企業 치소(Chisso)社의 境遇 繼續된 裁判后 日本法廷은 치소社가 間接的으로 水銀中毒에 걸리게 한 많은 犧牲者에게 補償해야 한다고 判決했다가 되고 있는 經營에 있어서의 倫理問題는 經營環境의 多樣化를 뜻하게 되고 社會에 있어서 複雜하게 짜여 있는 經營의 利害關係者의 價値觀이 많이 存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經營者는 從來부터의 經營者 自身의 價値基盤위에 多樣한 利害關係者에 依한 價値基盤을 考慮하고 그위에 여러 理論이나 接近法을 綜合 考慮해 가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經營에 있어서의 多樣한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풀게 되고 적어도 意思決定에 있어서 適切한 手段을 提供하는 것이 될 것이다.